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첫주부터 관람객 '인기몰이'

개장 첫주 21만 명 방문... 새로 도입한 스펙타클 아트랙션·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사로잡아

지난 1일 문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에 주말을 맞아 관람객이 대거 몰렸...

순천시에 따르면 개장 첫주부터 21만 명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2023정원박람회의 대박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는 평이다. 주말 6~7일 개장 2일간 입장객 수는 12만 명을 기록하고 개장 첫 주 관람객이 21만을 돌파했다.

이날 정원도시를 넘어 정원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가 국가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관람객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사로잡은 것은 우주선이 막 착륙한 듯한 '스페이스 브릿지'다. 175m의 다리 내부에는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디어어울로 곳곳이 포토스팟이 됐다. 스페이스 브릿지를 건너면 시원한



개방감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5천평의 화훼 공간 '스페이스 허브'가 펼쳐진다. 개막식 당일 1만여 명이 참여한 애니벤처스 퍼레이드가 열렸던 이 곳은 전용 전망대까지 설치되어 국가정원의 새로운 메인 포인트로 급부상했다.

시범 운영 중인 국가정원 야간 프리미엄 투어 '나이트 가든 투어'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관람객을 사로잡은 귀여운 스탬프 투어 '작은 정원사의 모험', 춤추는 세포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듯한 '우미의 세포들 더무비', 4D 입체영상관과 인터랙티브 전시, 프로젝션 맵핑이 있는 시크릿

아트벤처도 연일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관람객들은 "밤낮으로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에 감동", "다양한 콘텐츠가 새로 생겨 더욱 재미있어졌다", "화려한 볼품 사진 찍으러 또 방문 예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야심차게 도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더불어 화려한 사계절 화훼, 문화행사도 더욱 다이내믹하고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며, "이제는순천으로 오셔서 '정원문화도시'를 느끼고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번 4월 1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scby.sunch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보성, 지역사회와 협업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담인력 배치...수요자 관점 치매 관리 서비스 확대

보성군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 전문인력 투입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상담 이용을 확대해 수요자 관점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상담 참여자와 진단검사 대상자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영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선별검사 및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인식 개선 홍보 활동 강화, ▲치

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배치, ▲음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사례관리 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치매 환자의 타지역 거주 자녀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으로 이루어진 치매 조기 검진을 논스톱으로 제공한다.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관내 경찰서, 소방서, 학교와 연계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모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 군민들이 치매가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광양시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농작업과 입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에 발생하기 쉽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5~14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38도 이상의 고열·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동반한다.

또 치명률이 12~47% 정도(2013~2022년 국내 누적 치명률 18.7%)로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예방수칙으로는 ▲야외활동 전 모자, 긴팔, 긴바지, 등산화,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에서는 돗자리 등 깔고 앉기 ▲야외활동 후 털고, 씻고, 세탁하기 등이 있다.

한편, 광양시보건소는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와 감염병 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 꽃가루 활력 검정 무료 서비스

보성군은 지역 전략 작목인 키워, 배, 플럼코트 등의 인공수분에 활용되는 꽃가루에 대해 '활력 검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성군은 불량 꽃가루 활력 인공수분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재배 농업인이 작년에 채취해 보유 중인 꽃가루를 대상으로 인공수분 전에 활력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작목인 키워는 암수딴그루 식물로 암꽃보다 수꽃의 개화가 늦기 때문에 자연수분이 어려운 인공수분이 필요한 작목이다.

전년도에 채취해 냉동 보관한 수꽃가루나 외부 지역에서 구매한 꽃가루 활력 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작과량 확보 및 등급이 높은 과일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의 경우 개화가 저온현상 및 잦은 강우, 가뭄 등 이상 기상에 의해 해마다 자연 수분율이 감소해 인공수분이 증가하고 있어 꽃가루 활력 검정이 요구된다.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첫 공모사업 선정 쾌거

150억 전액 도비로 아파트 50호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전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했다.

군은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저 부지확보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등 전남형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꼼꼼하

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서면 평가 ▲현장 확인 평가 ▲전남도 심의 등 어려운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조성 비용은 150억 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운영 및 관리비도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성촌리 일원으로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이다.

대상부지 인근에 지난해 12월 국토

부 공모로 확정된 351억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140호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총 50호 아파트 형태이며, 면적은 신혼부부는 84㎡, 청년은 60㎡,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세부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군은 만원주택 TF팀을 4월 중 구성하고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등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흥=신용원 기자

광양시 마동정수장, 친환경정수장 견학지로 '인기'

소수력·태양광발전으로 연간 1억500만원 절감

광양시 마동정수장이 친환경정수장 견학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마동정수장은 시설용량 5만톤/일, 중마동 등 광양동부지역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70kw 소수력발전시설과 420kw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정수장 내부 전기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5백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소수력발전시설은 수어댐과 마동정수장 착수정과의 낙차가 약 20m 발생함으로 마동정수장 착수정 전단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마동정수장 유후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정수장에서 태양광발전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마동정수장처럼 소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하는 정수장은 많지 않아 유치

원 어린이들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은 물론 정수장을 방문하는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동정수장에는 코로나19 이전 해마다 유치원, 학생,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수도물 생산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 지난 5일 용강초등학교 80여 명이 정수장을 견학했으며, 앞으로 지역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물 생산 과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학습 장소로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 7년 연속 전남권역 주관대학 선정



국립순천대학교가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전남권역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으로 대학생 멘토 150명이 지역 청소년의 고른 학력(學力) 성장을 돕고,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장학금 혜택으로 학업에 집중하며 '교육 선순환'을 이끈다.

국립순천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 기관 소속 청소년에게 대학생 멘토가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등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순천대 대학생 멘토 70명은 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도내 45개 기관에서 멘토링을 시작했다.

지역 사회에서 순천대 멘토들의 교육활동은 열정적이기도 정평이 나 있다. 아동센터 학생들의 꿈을 위해 도복을 준비해 직접 태권도를 알려

주고, 중·고교생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지도에 나선다.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심 외곽 학생들의 요청을 받으면 대학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줄 대학생 멘토를 섭외하기도 한다.

우수한 사업 운영에 힘입어 국립순천대는 7년 연속 권역 주관대학에 선정됐다.

사업을 운영하는 순천대 학생지원과는 멘토링이 단기적인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우선 재학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교육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멘토 신청 인원과 장학금을 설계하였다. 학기와 방학 기간 활동을 조율하여 장기 활동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70만원의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휴·복학생 수요도 고려하여 하계 방학을 전후로 멘토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MOU체결

발달장애인 정보서비스 사업 추진 상호협력

순천시는 순천시립삼산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독서활동과 사서교육훈련을 위해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전남 최초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 삼산도서관은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토탈공예' 등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활동지원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협약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및 자료 제공 △사서 실습 등 교육훈련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 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내 3개 도서관(삼산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서 발달장애청년들이 도서정리, 이용자 응대 등 사서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구례, 노인대학 어르신 치매 예방·파트너 교육



구례군보건소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월 구례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어르신 7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수칙 등을 직접 교육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한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안내했다.

치매 예방수칙 333은 즐겨야 하는 3권, 참아야 하는 3금, 챙겨야 하는 3행을 말한다. 3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산과 채소 골고루 먹기, 매일 읽고 쓰기, 3금은 술 적게 마시기, 담배 피우지 않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이다.

교육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 알 수 없는 정보를 이렇게 방문해서 알려주니 너무 알차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실버인지놀이·토탈공예 진행

광양시는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참여자 45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2024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단프로그램은 우울로 인해 마음의 풀뚫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우울감 극복과 사회관계 향상을 위해 진행되며 6개 소집단으로 나눠 운영된다. '뭉툰뭉툰 마음뭉툰'이라는 주제로 실버인지놀이(6회)와 '긍정up 행복up 토탈공예' 프로그램(6회)가 진행된다.

시는 해마다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집단을 나누고 송영 서비스를 진행한다.

'뭉툰뭉툰 마음뭉툰' 실버인지놀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정서이완 ▲정서 나누기 ▲완전한 해소 ▲자기돌봄 ▲긍정적 자기암시 등이 화자별로 진행된다.

'긍정up 행복up 토탈공예' 프로그램은 ▲목걸이 카드지갑 만들기 ▲바구니 만들기 I, II ▲긍정인형 만들기 ▲다용도 트레이 만들기 ▲2단 수납함 시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향상을 지원한다.

/광양=조순의 기자